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6. 지난 이레 동안에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참 좋으신 주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여러 나라 말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총을 오늘의 우리에게도 내려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수많은 장벽들을 깨뜨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또한 물리적, 감정적, 심리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십시오.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할 때, 더 나은 세계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을 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사귄과 봉사의 중심이 되어주십시오. 낙심한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잡히 여기셔서 주님의 영으로 거둬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9:13 .....	인도자
♠ 교 독 문 .....	63. 성령강림절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최성애 집사 II. 한완식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174. 성령의 은사를 .....	다함께
성경봉독 .....	I. 행 2:1-13 .....	다함께
	II. 고전2:10-16 .....	안정숙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함께 있어 주세요 .....	김재흥 목사
	II. 기운 생동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03. 나 위하여 십자가의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  
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가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투덜  
거림을 그치고, 말없이 섬기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이웃들  
의 허물을 너그러워 사랑으로 감싸안으며 살겠습니다. 세상  
과 마주서는 일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해 내달리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에스겔 통독 강좌(24)	신명기 강해(4)
기도: 이형숙 집사	기도 : 박홍재 권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문영혜 집사 구성실 장로	인도자 이호원 권사

<b>5월</b>	영접위원	윤석철	김준호	김종훈	김애경	박효선	유경순
	헌금위원	강인식	이호원	김근중	김정숙	배삼순	이순정

## 인기 없는 덕목, 겸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벗이여, 우리는 영성의 대가들에게서 겸손이 영성생활의 토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상이라는 사랑의 탐색에 몰입하고자 진실로 바랄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키워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 세계에서 (어쩌면 늘 그래왔겠지만) 겸손은 가장 인기 없는 덕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의 탐색에서 첫걸음을 떼어놓는 일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참된 겸손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때라야 비로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신학자’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겸손이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그보다 한두 단계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겸손은 일부러 못한 채 하는 일종의 속임수가 되는 셈이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가 진실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알고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대는 겸손해집니다. 여기에서 지성이 다시 등장합니다. 지성이 끊임없이 진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지성은 늘 진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문 앞을 지나가는 진리를 보면 맞아들여 차 대접을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잘 알겠지만 지성이 맞아들여서 질문을 던질 아주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바로 그대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지성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나 진실한가? 무엇이 그대를 화나고 당황하고 슬프고 창피하게 만드는가? 그대는 현재 생활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자신의 직무에 대처하고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대를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가? 그대는 저급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고상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가? 그대가 마땅히 정면으로 부딪쳐야 함에도 피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같은 질문들은 그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종류의 자기 성찰에 익숙치 않다면 그대는 이런 물음들에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답변하고, 그리하여 자기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끌어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흘러서 그대 자신을 완전한 실패작으로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어느 쪽도 겸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 겸손이란 그대 자신을 진실하게 아는 것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을 지니고 있다면 그대는 자신을 진실하게 알 것이며, 그 진실이 그대를 자유롭게 풀어 줄 것입니다. 그대는 피조물이요 한 인간으로서 타락한 인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라 불리지만,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속임수·이기심·욕정·권력에 쫓리는 지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대의 지성으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자유로이 진단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이처럼 부정적이고 죄스러운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만큼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는 타락한 인류의 일원일 뿐 아니라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성자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덕분에 그대는 그리스도의 몸에 귀속되어 있으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현세와 내세, 양쪽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굽혀 그대를 타락한 인류라는 수렁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품에 안아 키워주고 감싸주며 사랑의 포용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양면을 모두 인정해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약점들과, 예수의 구속과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로 돌아와 받게 된 영광이라는 이 두 모습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깨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탐색에 뛰어들 때 그것은 우리의 참된 자아를 향한 사랑의 탐색에 뛰어드는 셈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한 사랑의 합일로 하나님을 껴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점차 참된 자아를 알아갑니다. 갖가지 약점들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없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아들딸인 우리의 모습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을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윌리엄 메닝거, 『사랑의 탐색』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참 좋은 당신**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한 해도  
참  
좋은  
당신.  
(김용택)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옥식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김종훈  
 안경숙 조관행 홍선희 구명자 김용진 박효선 홍순구 안홍숙 백승민  
 김필순 박애순 조문규 진정숙 정완수 김재광 이광용 형인순 김시영  
 박순희 박영희 이봉배 박시내 정복순 임승동 백혜숙 임고운 한인철  
 조윤숙 한지혜 김용원

### 월정헌금:

조항범 오현정 박석희 조항미 이용희 박준희 이기분 조병주 김성자  
 고숙이 김미순 이갑재 최동운 박찬정 전영자 이은자 최성애 하현철  
 권혁순 박혜경

###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윤석철 장해숙 정복순 유증희 이재문 이운화 백혜성  
 백혜숙 배상순 김용길 최영혜 김흥기 고숙이 허다영 김천순 박희영  
 신승윤 이은애

### 생일감사헌금:

윤미경 백혜수 김희은 무명1 구도헌금: 김재홍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박 영 희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임 창 선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령강림주일** : 오늘부터 성령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내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새교우환영회** : 금년에 우리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은 예배 후 중고등부실로 와주십시오. 선교부 임원들과 각 선교회장들도 참석바랍니다.
3. **기획위원회** : 오후 집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4. **봉사** : 봉사를 통해 믿음이 자랍니다.  
 종묘 급식 봉사(6월 2일 오전 11시15분)  
 애니아의 집 목욕 봉사(6월 4일 12시 30분)
5. **연합속회** : 6월 4일(금) 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갈릴리속 식사준비 - 안디옥속
6. **전도** : 연합속회 후에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고유가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은 경제적인 절약인 동시에 생태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헌화 - 김철수 장로/유영남 권사(결혼기념)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